# '풍년' 벼농사…전남, 순수익 20년 만에 최대

1000㎡당 44만6000원 전년보다 25.6%↑…전국평균 50만2000원 전남 논벼 생산비 77만7000원 5% 증가…종묘구입비·고용비 등 급등

지난해 쌀 가격은 하락했지만 6년 만의 풍년을 맞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가당 순수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지역 논벼(쌀) 농사 순수익이 928만 원을 나타내며 통계를 낸 이후 28년 만에 최고를 기

전국 평균 농가당 벼농사 순수익도 전년보다 13.7%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3일 통계청 '2021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 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농가당 논벼 순수익은 937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3.4%(176만원) 증 가했다. 전국 평균 농가당 논벼 순수익은 지난 2020년 698만6000원에서 지난해 794만원으로, 13.7% (95만4000원) 늘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통계청이 1980㎡이상 규모 논 벼 재배 1024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연말까지 생산에 투입된 직·간접 비용을 조사한 내 용이 담겼다. 이 자료는 수확기까지의 생산비를 조 사했으며, 순수익에서 수확 후 판매에 소요되는 유 통비용은 공제하지 않았다.

전남 논벼 순수익은 충남에 이어 전국 8개도(道・ 제주 제외)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충남 순수익은 1075만6000원으로,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8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 전남에 이어 경기(853만2000원), 전북 (834만7000원), 경남(695만9000원), 경북 (533만7000원), 강원(445만5000원), 충북

(341만5000원) 순으로 많았다.

전남 논벼 순수익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 난 1993년(182만7000원)의 5배 수준으로 뛰

전남 논벼 농가 순수익은 505만7000원 (2018년)→525만6000원(2019년)→751만5000 원(2020년)→927만6000원(지난해)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해왔다.

경작지 10a(아르: 100㎡)당 논벼 순수익도 전년 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전남 10a당 논벼 순수익은 44만6000원 으로, 전년보다 25.6%(9만1000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01년(48만4000원)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평균도 20년 만의 최대치인 50만2000원 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13.4%(5만9000원) 증가

전남 10a당 순수익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전 북(4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면적당 순수익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62만

1000원)로, 전년보다 순수익이 47.8%(20만1000 원) 뛰었다.

전남에서 10a당 논벼 생산비는 77만7000원으 로, 전년보다 4.9%(3만6000원) 증가했다.

전남 논벼 생산비는 지난 2018년 처음 80만원대 (82만400원)로 오른 뒤, 지난해 다시 80만원에 근

전국 평균은 전년보다 2.4%(1만9000원) 늘어 난 79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남 논벼 생산비 가운데 직접생산비는 62.8%에 해당하는 48만8000원 가량이었다.

직접생산비 12개 항목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비용은 종묘비(27.9%↑)와 수도광열비 (67.9% ↑), 노동고용비(31.9% ↑) 등이었다.

지난해 10a 기준 전남 종묘비 중 구입비는 30.1%, 자급비는 13.9% 오른 2만2000원으로 집

수도료, 전기료, 연료비 등을 아우르는 수도광열 비는 지난 2020년 10a당 5000원에서 8000원으로 67.9% 급증했다.

노동비 중 고용 부문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 로 31.9% 증가했다.

자동차비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19.4%(700원) 뛰면서 총 14.1% 증가한 4000원으로 집계됐다.

직집생산비를 제외한 나머지 37.2%(28만9000 원)은 간접생산비로, 토지용역비가 대부분 (97.6%)을 차지했다.

전남 토지용역비는 임차료가 10.3%(1만7000원 ↑) 오르는 등 총 5.2%(1만4000원) 28만2000원

전남 토지용역비와 임차료 증가율은 전국 평균 (2.3%, 6.1%)을 크게 웃돌았다.

통계청 측은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한 토지용역 비도 올랐다"며 "산지 쌀 가격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일조량 등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량 이 늘어난 영향으로 총수입이 증가했다"고 설명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깨끗한 축산농가 만들어요"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순천광양축협이 최근 '축산환경 개선의 날'행사를 열고 승주 생축사업장 등 6개 축산 농가에 서 냄새 확산 방지를 위한 편백나무 등 440여 주를 농장 인근에 심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송정농협, 농축협 종합경영평가 우수 농협

협 종합경영평가'에서 송정농협이 우수 농협에 선 협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정됐다고 3일 밝혔다.

도이다.

송정농협은 2020년도 3등급에서 2021년도 1등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일 '2021년도 농축 급으로 상승했다. 이로써 '경영향상부문' 우수농 공동이익 증진에 힘쓰고 있다.

농협중앙회 종합경영평가는 농축협의 재무상태 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적극적인 판매·구매사 했다"며 "내실 있는 경영과 농협 본연의 역할에 더 및 농업인 실익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 업 추진으로 농업인 실익증진 평가에서도 우수한 욱 충실해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최고의 농협 성과를 거뒀다.

한편 김형덕 송정농협 조합장은 지난달 광주시

조합운영협의회 제13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지역 14개 농협이 참여한 광주조합운영협의회는 농업 농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농정활동의 협력 및

김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조합원과 지역민, 그 이번 평가에서 송정농협은 전년에 비해 자산건 리고 임직원 모두의 관심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 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어촌공사, 시설물 365일 긴급 무상점검

#### 잦은 이상기후에 119센터 운영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자체 농업기반 시설물에 대한 긴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

이번 점검은 잦아진 이상기후 현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안전방지 대책과 재해대응 체계가 미약 한 지자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설물점검119센 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적 서비스 조직인 '시설물점검119센터'는

센터는 1년 365일 긴급 무상점검을 지원하고 있

업무는 일반지원과 전문기술지원으로 나뉜다. 일반지원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점검요청이 오 면 시설물 점검 및 복구방안을 제시한다. 전문기

술지원은 터널, 구조, 토질 등 8개 분야를 정밀 분

석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해예방과 재난 관리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동안 긴급 점검요청이 가장 많은 시설물은 저 수지로, 전체 약 70%를 차지한다.

전국 저수지 1만7147개소 중 시·군 관리 저수지 는 1만3747개소로 전체 저수지의 80%를 차지하 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 기술력과 인력 부 족으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공사에 전문 긴급 점 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잦은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안전사 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재해 발생시 인명 과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에 대한 점검 요청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올해 ESG경영 실천을 위한 안전, 지속가 능, 활력제고의 가치를 중점으로 미래과제를 수립 한 만큼, 공사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무상점검을 확대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 가 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

### 김춘진 aT 사장, 수산인의 날 기념식 참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달 1일 '수 산인의 날'을 기념해 김춘진〈사진〉 사장이 기념식 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11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이날 충남 보령에서

김 사장은 전국 수산인들과 교류하며 수산식품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2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매년 정부차원의 기념식 을 개최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수산식 품 수출은 28억2000만 달러 (3조4400억원)로사상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국 수산인들의 땀과 노력이 모 여일궈낸성과"라며"올해도 공사는 수산식품기업바우처

확대, 수출기업 맞춤형조사 및 박람회 참가 등의 다 양한 지원사업으로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 신안동 상업부지, 땅

176평, 오피스텔 허가 득 매매 - 21억, 조정가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33평, 사무실 전용, 전망좋음 급매 - 8천만원, 즉시 입주가

## 덕남동 임야, 최고 투자처

660㎡, 지분매매, 개발호재 多 매매 - 4400만원

## 대인동 오피스텔부지, 땅

156평, 9층 허가 득 매매 - 18억 5천만원, 조정가